국통 73-1-35

安保情勢變動要素分析

1973. 6.

序　　文

本書는 当院 政策企劃室에서 統一政策資料의 一環으로 最近 아시아太平洋地域의 安保情勢変動要素를 検討하기 為하여 生産한 것이다.

資料의 内容은 美国海軍協会의 機関紙「SEA.POWER」 3月号에 아시아의 海軍力에 関한 特集으로서 中共·日本·印度 三国의 戦略과 그 海軍力의 実態를 解明하였는데 그 全文의 内容 및 最近 世界的으로 急作스럽게 드높아가고 있는 「에너지」危機에 関한 美国·日本과 OPEC(石油輸出国機構)諸国과의 巧妙한 関係와 展望에 対한 論評을 訳載한 것이다.

本 出版에 関聯하여 미리 言及해 두고 싶은것은 本 資料集에서의 情勢評価나 判断은 当院의 情勢評価에 参考가 되었을뿐 当院의 見解와는 아무런 関聯이 없다는것을 分明히 밝혀두면서 本 資料集이 統一政策研究에 活用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分野를 研究하는 理論家들에도 多少나마 貢献이 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目 次

1. 中共・日本 印度의 海軍力分析 ········ 3

가. 中共編 ········ 4

나. 日本編 ········ 15

다. 印度編 ········ 29

2. 美国 및 日本의 "에너지" 危機実態 ········ 41

1. 中共. 日本. 印度의 海軍力 分析

가. 中　　　共　　　編

世界第三位가된中共海軍

強力한 潛水艦과 小型戰闘艇이 主力

Frank Uhlig Jo.

中国艦隊란 것이 어떤 意味에 있어서 報告의 価値가 있는 活動을 나타낸 以後 벌써 500年 以上의 歲月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共産中国의 海軍은 15万의 将兵을 가지고 있는데 全中共 軍兵力規模에서 보면 그 6%라는 一見 重要치도 못하는 部分을 構成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그러나 陸軍이나 空軍에 比較하면 海軍은 入隊登録된 将兵의 戰力을 拡大(精鋭化)하고 있는 것 같다. 例를 들면 第2次大戰中 蘇聯領内에서 싸웠던 独逸軍 勢力은 數百萬이었으나 大西洋의 U보-트(独逸 潛水艦)의 乗務員인 水兵은 4萬未満의 힘으로 간신히 戰局을 独逸의 勝利로 誘導했던 것이다.

世界第2規模의 海軍은 47万 5千名의 将兵을 갖는 蘇聯이다. 中共海軍은 規模에 있어서 世界 第3位이며 第4位와 第5位의 海軍国 即 英国海軍(8万名)·仏蘭西 海軍(7万名)의 合計所属要員의 数에 匹敵한다. 그 위에 日本의 海軍兵力은 4万보다 若干 強勢이다.

1. 防禦的 布陣

오늘날의 海軍力의 가장 効果的인 形式(潛水艦과 飛行機)에 있어서도 中共은 그 数量에 있어서 亦是나 世界 第3位의 地位를 占하고 있다. 即 就役中의 潛水艦은 40隻以上(英国은 35隻, 仏蘭西는 21隻, 日本은 12隻)이며 海軍戰闘用 航空機는 約450台이다(英国은 100台, 仏蘭西는 200台 日本은 125台임) 中共은 또 近海沿岸戰闘用의 小型戰闘艇이 大端히 強力하며 数百隻이나 所

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水中翼을 具備하고 있는 것 등 "스틱스·미사일" (1967 埃及海岸에서 "이스라엘"의 駆逐艦 "에이라도"号를 擊沈한 것과 同型의 미사일)를 装備한 것도 包含하고 있다. 이 小型戦闘用艦艇에 関해서는 蘇聯만이가 中共과 거의 同数를 가지고 있으나 英国·仏蘭西·日本·美国은 어느나라도 이 種類의 海軍力에 있어서는 極히 弱体이다.

그 뿐만 아니라 中共은 多数의 潜水艦, 飛行機 및 戦闘用 小艦艇(그 大部分은 1950年代의 蘇聯 디자인에 따라서 建造되어 있음)을 継続 建造中이다.
거기에 또 中共独自的 "디자인"에 따른 誘導미사일設置 駆逐艦도 建造中이다.

中共은 中距離 弾導미사일用 発射管을 装備한 潜水艦을 한隻 所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中共은 潜水艦의 使用에 適合한 미사일 그 自体는 가지고 있지 않다. 어느 情報通에 依하면 中共은 攻撃型 原子力 潜水艦 1隻을 建造中이라고 하지만 美国의 前国防長官 "멜빈 R 레어드"氏는 그 存在를 立証할만한 証拠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中共의 海軍力은 北部方面·東部方面·南部方面의 三艦隊로 나누어져 있다. 北部方面艦隊는 黄海(西海)의 諸基地를 根拠地로 하여 作戦하며 東部方面艦隊는 中国中部를 안고 있는 地域의 諸基地에서 南部方面艦隊는 南支那海의 諸基地에서 各々 行動하고 있다.

中共海軍의 布陣은 防禦的인 것 같이 보인다. 即 北部艦隊는 北京에 対한 海上으로 부터의 接近을 防禦하고 東部艦隊는 中国最大의 都市 上海를 防衛하고 南部艦隊는 華南의 서울이며 中国第6位의 都市이기도 한 広州를 防衛하는 形態로 되어 있다.

이들 3地域은 어느것이나 過去 一世紀半의 期間에 海上으로 부터의 軍事侵略에 露出된 経験이 있었든 곳이다.

中共海軍은 꼭이나 海上에 있어서 冒険主義로 알려져 있는것은 아니다. 그 戦闘力의 大部分(小艦艇群과 所属飛行機의 大部分은 旧式 미그戦闘機임)은 長距離作戦에는 不適合하다. 그러나 第1次大戦에 앞선 20年間은 独逸海軍도 同一하게 評価받았든 것 같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1914年에는 独逸海軍은 英国海軍에 挑戦할 程度로 強化되었던 것이다. 또 蘇聯海軍은 只今이야 全世界에서 높이 評価된(또는恐怖対象인) 大艦隊로서 온 世界를 巡回하고 있지만 世上 사람들이 蘇聯艦隊는 沿岸防衛戦力에 不過하다고 正確히 評価한 것은 不過 20年前의 일이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中国의 北部方面艦隊는 攻撃戦略에 参加할 境遇에는 韓国向의 攻撃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大端히 不利한 位置에 있다. 그러나 이 艦隊와 東部方面艦隊는 大端히 손쉽게 相互補強이 可能하다. 그러나 台湾이 敵対関係에 있고 또 強力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南部方面艦隊는 前2者(東部 및 北部艦隊)로 부터 孤立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2. 対日 戦略

萬若 中共과 日本이 戦争을 하게 될 境遇에 있어서도 적어도 緒戦中에는 尨大한 中共陸軍이 日本에 被害를 준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万一에 中共이 自己의 意思를 日本에 強要하기 為해서 軍事的 手段을 使用할 것을 希望한다 할지라도 中共은 그 手段을 核攻撃(미사일 또는 爆撃에 依한)이나 通常의 爆撃이나 또는 海軍의 戦闘行動에 限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最後의 方法(海軍의 戦闘行動)도 日本에 対해서는 最小限度의 物理的 打

擊밖에 주지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万一에 成功한다 할지라도 "미사일"攻擊 또는 空襲에 依해서 期待할 수 있는 것과 同一한 程度以上의 政治的 効果는 갖일 수 없을 것이다. 勿論 韓半島를 経由한 陸海空軍 共同(合同)의 対日侵入이라는 手段은 中共이 取할 수 있는 또 하나의 作戦 "루-트"이다.

"스노-켈"換気装置를 装備한 最新式通常型 潜水艦(中共은 이것을 約 40隻가지고 있음)으로는 上海附近의 東部方面 艦隊基地群에서 日本의 国民生活에 必要不可欠의 "당가-"鉱石輸送船 其他의 船舶이 多数 떼를 지고 発見될 日本列島의 東海岸까지 不過 3.4日의 航続距離이다.

그러나 日本이 美海軍 研究所 "会報" 1971年 5月号에 掲載된 한 日本専門家의 提案을 実施하여 日本 本土에서 南方에 約 1,000마일에 걸처 뻐쳐있는 두個의 "채인"의 島嶼群에 飛行場을 設置하고 各島嶼間에 固定探知装置를 해 두면 日本은 日本水域에 接近할려고 하는 中共潜水艦의 企図를 샅샅히 打破할 수가 있을 것이다. 即 群島間을 通過할려는 潜水艦은 探知装置群에 依해서 손쉽게 捕捉되며 그들 群島를 基地로 한 日本側의 駆潜艇 및 飛行機에 依한 攻撃対象으로 露出될 것이다.

이 방패(楯)의 뒤에서 西와 南과 交易하는 日本의 商船隊는 (必要한 境遇는 果敢하게 中央突破를 해온 潜水艦에 対한 防衛를 為한 輸送船団을 編成하여 航行할 수도 있을 것이다) 日本과 "比律賓"間의 海域을 安完하게 通過할 수 있다. 美国과의 交易에 従事하는 商船群도 勿論 이 障壁(바리야-)에 依해서 保護받게 된다.

3. 台湾의 地位

台湾은 이 計劃에 対해서는 中心的 地位에 있다. 万一에 台湾이 日本에 対해서 友好的인 것 같으면 그것은 琉球列島防衛 "채인"의 南端의 "앵카-"를 形成할 役割을 맡을 런지도 모르고 나아가서 中共側이 그 海軍力을 東部方面과 南部方面의 戰場에 再配置한 것을 妨害할 役割도 할수 있다. 万一에 台湾이 日本에 対해서 敵対関係의 立場에 있을것 같으면 台湾은 中共海軍의 再展開를 為한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中共의 潜水艦 또는 爆擊機가 琉球防衛線의 뒤를 迂回하여 商船隊를 攻擊할 수 있는 基地를 台湾이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

台湾이 蘇聯과 同盟関係에 설 境遇에는 아니 그러한 境遇에 있어서 만이 台湾은 中日戰争에 있어서 中立·公平한 立場을 取한다는 것도 想像할 수 있다.

"펠샤"湾에서 石油를 싣고 印度 또는 濠洲 北西部에서 鉄鉱石을 실은 日本向 船舶은 모두 세개의 狭隘한 海狭(印 "마레샤"와 "스마토라"間의 "마락카," 海狭 "스마토라"島와 "쟈바"섬間의 "슨다海狭 "바리"島와 "슨바와"島間의 "론보쿠"海狭)의 하나를 通過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이들 船舶은 南支那海를 通過하거나 或은 若干 迂回코-스를 取하여 "비울빈"諸島의 外側을 通하거나 해서 北으로 向할 수 있는 形便이다.

万一에 "비울빈"과 日本本土사이의 海上에서 中共潜水艦을 遮断할 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들 潜水艦은(万一 広州附近을 根拠地로한 南部方面 艦隊에 集中했을 境遇에는) 継続 南支那海에서 日本의 船舶航路에 近接할 수가 있을 것이다. 事実 不過 一週間의 航海에 依해서 広東을 基地로 한 通常型潜水艦은 "마락카" "슨다"

"론보크" 各海峡의 入口에 到着할 수가 있다. 万一 이들 潜水艦의 基地가 南"베트남"의 "캄란"湾 또는 "분타우"港에 까지 進出한다고 할 것 같으면 3海峡까지의 航行時間은 다시 半減한다. 但 이것에는 그 時期에 南"베트남"을 支配하고 있는 政府(그것이 어떠한 政府이든間에)의 協力이 必要한 것이다.

日本의 海上自衛隊는 이와 같은 中共艦隊에 対抗할 程度의 艦艇의 数도 없을 뿐만아니라 適切한 種類의 艦艇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곧 展望할 수 있는(豫見할 수 있는) 将来에 있어서는 日本은 그 商船隊의 保護를 美国 第7艦隊에 依存치 않을 수 없다.

勿論 日本과 中共과의 戰爭의 可能性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近代史에 있어서나 古代史에 있어서나 前例는 많이 있었다. 따라서 豫期치 않은 事故에 対한 計劃立案者는 "가장 可能性이 많은" 줄거리(青写図)以外의 일에 対해서도 対策을 準備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4. 東部戰線 戰略

中·日戰争은 可能性이 極히 稀薄한 것 같이 보이지만 中·蘇戰争에 関해서는 그 可能性이 顯著하게 많다.

中·蘇戰争이 核戰争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大部分 陸上에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雙方의 陸軍의 大部隊가 中央 아시아에 있어서 大激戰을 演出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決定的인 戰鬪는 東部戰線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中共側이 取할 可能性이 가장 많은 戰略은 "시베리아"의 東南端에 있는 "우라지오스톡크"와 그것에 隣接해 있는 "나호토카"를 孤立시키고 이어서 占領奪取한다는 것 일것이다. "시베리아"에 있어서의 肥沃한 土地와

魅力的인 気候를 갖는 唯一한 地点에 있는 이들 両市는 東部"시베리아"의 人口와 工業이 集中된 主된 中心地이다. 両市는 또 東北部"시베리아"를 부양(養殖)하고 있는 海上輸送体系의 中心이다. 그리고 蘇聯 太平洋艦隊의 主根拠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一世紀前에 不平等条約에 依해서 中国이 蘇聯에 뻬앗겼다고 中国側에서 생각하고 있는 土地에 位置하고 있다.

"우라지오스톡크"의 北方 約400마일 中国領에서 "우스리-"江을 건너 바로 対岸에는 또 하나의 攻擊받기 쉬운 弱点을 갖고 있는 都市 "하바로스크"가 있다. 万一에 이 都市가 中共側에 占領될 것 같으면 蘇聯軍은 그곳으로 부터 西쪽 1,000마일의 "치다"에서 作戦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攻略할 価値가 있는 如何한 軍事目標로 부터도 山脈地帯에 依해서 切断되는 結果가 될 것입니다.

蘇聯은 攻擊을 받기 쉬운 그 東北部"시베리아"의 領土를 援護(守護)하기 為해서는 中国 東北地方에 侵入하여 아마도 北京에까지 이를려고 할 것이다". 中共側이 勝利할 境遇에는 "우스리-" "아무-루" 両江 以東의 "시베리아"領의 返還을 要求하게 될 것이다. 蘇聯側이 勝利者가 되었을 境遇에는 黒龍江省과 吉林省 및 内蒙古의 一部를 要求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情勢下에 있어서 海軍이 遂行해야 할 役割은 무엇일 것인가? 万一에 中共陸軍이 "시베리아"横断鉄道를 切断했다고 할 것 같으면 蘇聯의 主要部(欧州地域露西亜)와 "시베리아"를 連結하는 唯一의 陸上連絡通路는 破壊되어 버리는 結果가 된다. 蘇聯으로서는 그에 代身하는 唯一한 寒暖을 不問하는 全天候루-트는 欧羅巴로 부터의 海上루-트(아프리카 南端을 돌아서 印度洋을 経

由하는 루-트와 "케이프"갑(岬) 또는 "파나마"運河経由의 太平洋横断 루-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印度洋루-트가 使用될 境遇에는 中国南部에 基地를 둔 中共潜水艦이 南支那海에서 蘇聯船団에 接近할 수 있다는 것은 日本船団에 対하는 境遇와 同一하다.

万一 太平洋 루-트를 利用할 境遇에는 蘇聯船団은 日本海의 入口의 海狭(複数)에 接近할 때 까지는 安全할 것이다. 이들 海狭의 海上에서는 아마 많은 中·蘇 海戦이 일어날 것이 豫想된다. 外交的 方法에 依하든 軍事的 努力에 依하든 中共이 韓半島(特히 그 南半部分의 韓国)을 掌握하며는 対馬海狭의 封鎖를 可能하게 할 뿐만 아니라 中共海軍이 日本海의 支配를 걸고 蘇聯海軍과 서로 競争하는 事態까지도 招来하게 될 것이다.

5. 韓半島의 確保가 열쇠(키-)

蘇聯의 太平洋艦隊는 中共艦隊에 比해서 그 隻数에 있어서는 劣勢이나 그 構成·内容이 相異하여 아마 戦力에 있어서는 対等할 것이다. 戦争勃発時에 있어서(戦争前이면 더욱 좋다) 蘇聯艦隊로서의 가장 有利한 行動은 韓国을 그 統制下에 두고 自己의 必要에 利用한다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日本海를 中共海軍의 侵入으로 부터 防衛함과 同時에 対馬海狭을 蘇聯船団에 対해서 開放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 北京에 対한 蘇聯軍의 陸海 共同의 総攻擊에의 길을 트는 것으로도 된다.

台湾과 蘇聯이 万一에 了解하는 程度에 이를 것 같으면 蘇聯의 爆擊機가 台湾의 飛行場을 使用해서 中国東部 및 東南部의 大都市를 攻擊하는 것도 可能할 것이다. 가장 重要한 것은 台湾에서의 中共本土中部海岸에 対한 陸海共同攻擊의 威脅이 中共側 陸海軍의 大部隊를 北方에서 싸우게 하지 못하고 台湾에 向한 正面에 묶어

놓게하는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万一 그와 같은 了解가 成立할 것 같으면 蘇聯의 海軍力은 台湾에의 補給確保에 全力을 다하게 될 것이다.

韓半島(特히 그 南部)를 確保하고 또 日本을 自国의 陣営에 세워서 戦争에 参与케 한다는 것은 中·蘇 雙方으로서는 明白히 有利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同一하게 日本으로서는 이와 같은 戦争의 밖에 머물러있는 것이 有利하단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局外에 서기 위해서는 両交戦国의 要求를 뿌리쳐 나갈만한 充分한 軍事力(主로 海軍力)을 日本이 갖는다는 条件이 必要하다. 이와 같은 海軍力은 日本이 許容하는 限界点까지 日本의 領土 및 領海에 接近할 것이라는 交戦区域에 있어서의 日本船舶의 平和航行을 保護하기 為해서도 또한 必要할 것이다.

中·蘇 両交戦国의 어느便인가가 韓国(韓半島南部)을 占領한 境遇 그 他方은 威脅을 받는다. 똑같이 日本도 中蘇 어느便인가가 韓国을 占領하면 威脅을 받는다. 韓国이 再次 日本의 手中에 들어가면 中·蘇 両国은 다같이 威脅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東北아시아에 있는 三大国의 그 누구도 韓半島를 支配치 않고 그리고 적어도 韓半島의 南半部分이 政治的 経済的 軍事的으로 強力하다는 것은 이들 三国으로서도 利益이 될 것이다. 여기에 当分間은 이것이 美軍의 韓国駐屯 継続의 要請形式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南北 2個部分을 再統一한다는 現在의 努力이 成功하는 아침에는 4,000万을 넘는 人口를 갖고 優秀한 農業·工業·軍事上의 技術과 資源을 갖는 単一国家가 出現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南北統一 協定이 成立하기 以前에 韓国駐屯의 美軍은 撤収치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그 時期까지는 이 地域에 있어서 美軍이 遂行해야 할 役割은 없는 것이다.

6. 中共의 必要에 適合한 海軍

中共海軍은 主로 海上戰鬪用 大艦隊를 갖지않고 또 弾道미사일 装備의 潜水艦隊를 갖지 않는다는 点에서 몇年前에 「모델·챈지」를 完了한 것으로 보인 蘇聯海軍과 質的으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共海軍은 蘇聯海軍과 같이 潜水艦 및 沿岸戰鬪艇에 있어서는 相当한 規模의 艦隊를 所有하고 있으며 또 沿岩陸上基地에서 発進하는 強力한 航空部隊를 가지고 있다. 勿論 이들의 要素는 海上 戰鬪用 艦艇이나 弾導미사일装備潜水艦보다도 훨씬 容易 또는 急速히 建造할 수가 있다. 그리고 中共海軍은 少数이지만 後者타입의 諸艦艇을 가지고 있다.

中共海軍이 選定한 戰鬪用艦艇의 "타입"은 中共으로서의 当面한 必要性에는 適合한 것 같다. 万一에 将来 中共의 必要性이 変化됬다는 것이 認識되면 그에 따라 中共艦隊의 種類·性質도 変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東아시아의 地理的인 本質과 그 結果로서의 이 地域에 있는 潜在的 紛争의 境遇 있을 수 있는 戰略的 条件과를 考慮하면 中共이 長期的으로 그들의 艦隊를 現在以上으로 蘇聯艦隊에 -美国 艦隊에 対해서는 더욱 말할 것 없고- 均衡되게끔 努力한다는 것은 우선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나. 日　　本　　編

(廢虛에서 繁榮으로)

日本과 不等辺 三角形

廃虚에서 繁栄으로

(Lawrence Griswold)

벌써 1世代 以上이나 前의 일이지만 1945年 日本帝国의 旭日(旭日昇天의 威勢)는 爆撃에 떨면서 荒廃化된 그 国土의 彼方에 没落하였다. 그에 앞선 3年前 実로 "징기스칸"의 勝利 以来 最強의 아시아帝国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어색한(서글픈) 追憶이 되고 말았다.

帝国 海軍은 崩壊하고 空軍은 하늘에서 축출되고 陸軍은 膨大한 数의 将兵을 잃었다. 그리고 두개의 都市는 原爆攻撃때문에 廃虚로 化했다. 本土는 美国의 軍事占領下에 놓이게되어 完全히 膺懲된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1973年 初頭의 現在 旭日은 또다시 東方地平線에서 빛을 내고 일찌기 武装解除를 当하였던 日本이 다시금 海·陸軍의 힘을 具備한 나라로서 登場하고 있다.

이것은 美国外交政策의 입맛 쓴 追憶이지만 두개의 世界大戦後 美国은 旧敵国自身과 利益을 旧同盟国의 威脅으로 부터 守護하기 為하여 그 復興을 企図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8年末에 이르러 "러시아"의 "지니"(訳注=千夜一夜物語의 魔物)는 "유-라시아"의 瓶에서 뛰어 나와 한片은 満州와 韓国으로 한片은 中欧와 "발칸"半島까지 그 모습을 나타낸 結果, 荒廃한 独逸과 日本은 保護를 必要로 할 뿐만 아니라 再建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明白하게 되었다. 1950年6月25日 北韓의 金日成政権은 蘇聯의 支援下에 南韓 및 (東京도 잘 알고 있듯이) 日本을 目標삼아 攻

爭을 開始하였다. 이 威脅은 옛날부터의 일이기에 日本사람들은 이와같은 表現을 한다. 「韓国은 日本의 心臟을 겨눈 匕首이다」 外部의 支援이 없드라도 武裝된 韓国은 非武裝의 日本에게는 重大한 威脅이다. 況且(하물며) 蘇聯이나 中共과 連携하는 統一韓国이 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끔찍스러운 威脅이 된다. 美占領軍은 하루 저녁 사이에 日本의 방패가 되었다.

1. 펜타곤의 誤算

日本사람 중에 그들의 祖国의 섬들에 対한 蘇聯의 底意를 잘못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크레무린"은 広島上空에서 原子弾이 爆発하기 数個月前에 天皇이 降伏의 意思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通知받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소련의 宣戦布告가 前에는 強力했든 満州의 関東軍이 裸体가 되어서 非能率的인 予備兵으로 된 数個守備隊로 까지 減少된 後에 비로소 行하여졌던 것을 日本政府는 充分히 알고 있었다. 日本은 또 "맥아더" 将軍의 強力한 主張이 없었드라면 九州에서 北海道까지 속속들이 蘇聯 占領軍이 進駐하여 왔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事実은 그와 같이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蘇聯은 宗谷海峽을 防衛하기 為해서 歯舞諸島와 같이 国後·択捉 両섬을 接収하였다. 이들 섬의 占有는 蘇聯海軍에게 "오호쓰크"海와 太平洋間의 安全한 通路를 保障하였다.

이와같은 蘇聯의 行動에 挑戦하지 않았다는 것은 "펜타곤"側이 失手한 不吉한 過誤였다고 日本政府 消息通은 말하였다.

経済的으로는 韓国戦争은 日本으로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느님의 贈物이었으며 그 復興의 速度를 特히 工業面에서 무서운 힘으로 促進시켰다. 1950年부터 1953年 사이에 美国은 直接援助의 形

式으로 約 40億달라를 戰争에 投入하였다. 日本의 電子産業과 光学産業은 "젠타곤"과의 契約에 依해서 繁栄하였다. 戰争中(第2次大戦) 美第8空軍의 爆撃에 依해서도 奇蹟的으로 被害없이 남았던 日本의 造船所와 海軍基地는 北韓으로 부터의 攻撃開始前에 船舶의 建造에 着手하였으며 商船은 進水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1953年末(日本海의 彼方에는 分断된 韓半島가 形成되었고 全面的으로는 信頼할 수 없는 서울 支配의 緩衝国家가 提案된 해)에는 점점 自信을 갖게된 日本政府는 陸上의 少数의 警察予備隊와 海上에서는 数隻의 哨戒艇밖에 갖지 않았던 組織에서 보다 더 実際的인 組織의 建設을 생각하기 始作하였다.

日本国 憲法(다그라스・맥아더 元帥의 聯合軍 総司令部의 立案으로 1947年 日本国会에서 採択된 것임) 第9条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国権의 発動인 戰争과 武力에 依한 威嚇 또는 武力의 行使는 国際紛争을 解決하는 手段으로서는 永遠히 이를 抛棄한다.

② …… 陸海空軍 其他의 戰力은 이것을 保有치 않는다. 나라의 交戰権은 이것을 認定하지 않는다」……

平和条約 調印後 10年을 経過한 1961年까지 日本政府는 이 "戰争抛棄"条項을 厳密히 固執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해(61年) 東京의 最高裁判所는 「日本은 "自衛権"을 갖는다"」라는 判決을 내렸다. 第9条는 日本国 憲法中에 不変한채 남아 있으나 이 最高裁判所의 判決의 훨씬 以前부터 陸海空軍 保有의 必要性은 一般的으로 是認된 "파라독스"였었다.

2. 政治 経済環境의 変化

1951 ~ 1961年 사이에 政治的 経済的 環境의 変化는 日本政

府로 하여금 西太平洋에 있어서 日本의 將来를 再評価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韓国과 라오스에 있어서 美国의 進退両難의 打擊을 받은 後 北京의 中共政權의 安定化와 蘇聯의 太平洋航海에 対한 새로운 努力의 集中은 서로 相乘作用을 하여 敵対하는 地域에서나 激烈한 競争地域에 있어서 日本의 弱点을 더 強調하는 結果가 되었다.

台湾까지도 日本으로서는 消費物貨의 輸出競争国이 되었다. 自衛의 概念은 習時동안의 "팍스·아메리카-나"가 이미 消滅해 가고 있는 公海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해서 大洋航海를 감당할 수 있는 海軍力까지도 包含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明白하게 되었다.

1950年代에 있어서의 日本의 産業과 貿易의 復活은 原資材와 燃料에 対한 産業上의 要求를 増大시켰다. 또 이들의 物資는 일찌기 日本의 軍事的支配下에 있었던 地域, 或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最近 独立하였거나 또는 마침내 独立하려고 한 말하자면 政治的으로는 겨우 独立하였지만 아직도 未発達한 地域에서 数많이 輸入되었다.

日本産業이 그 燃料資源으로서 大端히 必要로 한 "인도네시아"의 石油도 当時는 全혀 入手不可能한 것으로 보였다. 当時 "스카루노"治下의 混乱한 "인도네시아"는 "모스코바"와 北京間을 彷徨하고 있는 状態였기 때문이다.

日本의 実業家들은 石油産出国의 "아랍"諸国과 "펠샤"湾의 石油採掘 利權 獲得交渉을 하는데 거의 時間을 浪費치 않고 迅速하게 이것을 入手하였다. 1965年 責任있는 "인도네시아"政府가 国政의 支配權을 掌握하였을 때에는 日本의 貿占商人들은 "펠샤"湾에서 벌써 日本製의 탕카-에다 石油를 船積하고 있었다.

그리고 印度洋을 橫断하고 "마락카" 海峡에서 西太平洋을 通過하여 日本에 到達하는 長大한 海上루-트는 海軍力에 依한 必要性을 더욱 더 增大하였던 것이다.

3. 世界 第1의 造船国

1967年의 "스에즈" 運河 閉鎖는 日本의 石油供給에는 極히 些細한 消極的인 影響을 주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南아메리카를 迂回하는 欧羅巴나 美国으로의 長大한 代替航路를 正当化 하기 為해서 巨大탕카-의 急激한 需要가 생기게 되어 그것이 日本의 造船業에 커다란 刺戟剤가 되었다.

第二次大戦 当時의 旧日本의 超大型戦艦을 建造하였던 "呉"나 "佐世保" 또 "横須賀" "神戸" 등의 各造船所의 長大한 船台는 巨大탕카-의 建造作業에 配当되었다. "三菱" "川崎" "三井"의 各 造船会社나 "播磨重工業이 所有한 其他의 造船所도 戦争被害없이 남아 있었으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最大限의 造船契約을 할 수가 있었다. 日本本州와 九州의 海岸에는 새로운 造船所가 繁昌하였다. 例를 들면 本州 北部海岸에 새로이 誕生한 "무쓰" 市와 그 造船所는 日本의 新鋭原子力船 "무쓰" 建造를 為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同船은 総屯数 1万400屯의 商船이며 現在 就航을 앞두고 全面的인 試験을 받고 있다.

1968年에는 日本은 超大型 탕카-의 世界第一의 造船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急速히 太平洋에 있어서의 復活海軍国으로서의 地位를 되찾아 가고 있다. 陸上自衛台도 3倍以上의 兵力(7万5,000에서 25万으로)을 갖게 되었다.

自衛隊는 現在도 如前히 美国製自動火器와 戦車로 装備되어 있지만 主力 大型戦車에 있어서는 日本自身의 設計에 의한 "SIBI"

도 所有하고 있다. 航空自衛隊는 日本製의 F-104를 使用하고 있으나 三菱에서는 美國 "판톰"機의 "라이센스"를 얻어 "판톰"型 戰鬪機를 生産中에 있으며 또 爆擊機에 있어서도 거의 直刻的으로 生産에 들어 갈만한 設計段階에 있다.

日本海軍(海上自衛隊)도 또 더욱 많고 良質의 艦艇을 갖게 되었다. "젠 海軍年鑑"의 最新版은 日本軍의 現有戰力을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디-젤"潛水艦 :	11隻
驅逐艦(誘導미사일搭載用 1隻을 包含)	30隻
護衛驅逐艦	14隻
機雷敷設艦	3隻
高速哨戒艇	20隻
沿岸掃海艇	37隻
掃 海 艇	6隻
水 雷 艇	10隻
訓練用船舶	2隻
潛水艦救助艇	2隻
碎 氷 艦	1隻
戰車揚陸艦	4隻
機雷掃海用	4隻
支援艦 其他 小舟艇	86隻

以上과 같은데 그中 驅逐艦의 一部는 "다-다-·미사일" 및 "아스록크·미사일"을 裝備하고 있다. 더욱 上記 以外에도 小艦艇 : 292隻(그 大部分은 小型哨戒艇)이 있으나 이들은 沿岸警備隊인 海上保安庁의 所属이다.

伝하는 바에 依하면 日本海軍의 首脳部는 "무쓰"에 対한 三菱, 原子力工場의 業績을 大端한 関心으로 注目하고 있으며 万一 同船이 現在의 "테스트"에 成功할 것 같으면 1973~1974会計年度에 建造予定의 새로운 攻擊型潜水艦은 原子力艦이 될 可能性도 있을 것 이라고 한다.

4. 防衛予算을 追加要求

1973年度의 海上自衛隊 予算案이 通過된 後 田中内閣은 지난 7月의 防衛予算의 倍額의 追加予算을 要求하였다.

이 追加要求는 10月9日에 提案되어 그대로 承認되었다. 그 結果 海上自衛隊는 具体的으로는 다음의 各項目의 建造費 予算을 얻었다. 即

헬코프타 母艦	2隻
攻擊型 潜水艦	5隻
駆逐艦	13隻
誘導미사일付 高速駆逐艦	1隻
艦対艦미사일付 高速駆逐艦	1隻
支援艦	1隻
小艦艇	31隻이다.

그밖에 海上自衛隊 航空機部隊도 対潜哨戒機 87台와 対潜哨戒 헬곱터- 24台의 購入予算이 承認되었다. 한편 一般防衛用 리스트에는 迎擊戦闘機 92台가 追加되었다.

日本 再軍備에 対한 이 뜻밖의 予算追加는 美軍의 아시아에서의 急速한 撤収가 이들 地域에서 美第7艦隊에 蘇聯이 代役하게끔 招待된 것과도 같다고 蘇聯政府가 잘못 解釈할 可能性이 있다는 疑惑을 日本이 가지고 있음을 立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아마도 (이것은 若干 独断的인 日本人의 見解이지만) 美海軍 頹勢가 더욱 더 顯著히 나타나고 있는 事態가 必然的으로 옛날의 日本帝国 海軍의 強力艦隊의 復活을 強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5. 日本 核武装化의 基盤整地 完了

広島・長崎의 무서운 教訓後 日本사람의 反応은 "아이젠하워"의 「平和를 為한 原子力計劃」에서 表示된 平和的 目的以外에는 原子力의 国家에 依한 使用을 防止할 것을 目標로 하게 된 것 같다. 이것은 現在도 여전히 事実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現在 日本原子力委員会는 5個의 原子力発電所를 稼動시켜 合計 1823메가왓트의 出力을 達成하고 있으며 더욱 1974年中에는 새로이 11個 工場이 "臨界点"에 達할 予定表로 되어 있다. 이 部分의 調査研究에 当하고 있는 日本의 科学者들은 蘇聯과 中共을 除外하고 "核子라부"에 들어 있는 모든 나라와 情報交換을 하고 있다. 核弾頭用에 適合한 "濃縮우랑"은 美・英・仏・濠洲에서 輸入되고 있다. 그러나 高速増殖型原子炉에 依하여 核分裂이 可能한 "프라토늄"을 生産할 수 있게끔 計劃된 熱核工場이 稼動할 境遇에는 이들 輸入"우란"에 対한 需要도 漸次 減小되어 갈 것이다.

相当히 厳格한 機構이지만 오늘에 와서는 이미 排他的이라고는 볼 수 없는 "核子라부"에 参加할만한 日本의 能力을 確立하기 為해서는 運搬手段의 "시스템"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点만에 있어서는 1957年의 最初의 "펜실・로켓트"가 発射된 以来 커다란 進步가 있었다.

1962年 美空軍의 協力下에서 日本의 "람다・2号 4S로켓트"가 "버지니어"州 "와롭보스"섬에서 大気圏에 発射되었다. 日本

의 現在의 로켓트 構造는 積載能力 75粁인 "유-4S型" (固体燃料使用의 4段로켓트) 이지만 이것은 大洋横断可能한 能力을 갖는다고 伝해진다.

韓国戦争의 膠着状態가 끝난 이래 歴代의 日本内閣은 그들의 対美関係에 있어서 점점 民族主義的인 傾向을 보여왔다. 田中角栄現首相의 前任者이며 一般的으로 新美的이라고 보여 왔던 佐藤栄作前首相까지도 "오끼나와" 返還交渉을 成功裡에 成就시켜 그 結果로서 九州에서 "오끼나와" 台湾을 経由하여 "루손島" 까지 拡大되어 衰徴의 徴兆가 보인 西太平洋防衛線을 形式上으로도 더욱 弱化시키는 行為가 되었다. 1世紀前의 "아시아" 의 三角関係 (蘇聯·中共·日本의 関係) 가 새로운 時代로 더욱 빠른 템포로 核의 "메트로놈-의 型을 取하면서 또 다시 誕生할려고 한 것 같이 보인다.

三者는 各各 그 相対方에 対하여 제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頭部를 欧羅巴에 두고 "유-라샤" 에 펼쳐 있는 腹部에는 豊富한 資源을 갖고 사람을 찔는 꼬리를 아시아에 두고 있는 精神分裂症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地理的인 "몬스타-" 蘇聯은 豊富한 鉄物資源과 穀倉을 갖는 中国의 몇개가의 省 및 中国의 港湾의 獲得을 目標로 陰謀를 꾸미고 있다. 蘇聯은 또 日本을 自己의 밑에 従属시키고 싶음과 同時에 日本의 産業과 機械技術能力을 羨望의 눈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서 太平洋에 나갈 "시베리아" 의 出口를 封鎖하고 있는 日本의 軍事能力을 두려워 하고 있다.

1945年의 大戦終結後도 満州로 保有할려고 하였으며 또 1950年에는 共産党支配下의 北朝鮮을 対馬島海狭에까지 拡張할려고 하였던 저 "스탈린" 의 은근한 試図는 北京에도 東京에도 警戒心을 주는 結果

가 되었다. 中·蘇問題에 關한 一部 專門家에 依할 것 같으면 1950年末 北京政府가 北朝鮮支援을 為하여 "義勇軍"을 大量投入한 것은 美軍과 싸우기 為해서가 아니라 蘇聯이 再次 滿州와 韓半島를 占領하는 것을 沮止할려고 했다는 說이 더 充分히 可能性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6. 世界 列強의 地位回復에

日本의 野望도 1900年以來 基本的인 變化는 없다. 日本은 1942年의 軍事的征服後 保存 維持할 수 없었던 그 大帝国을 오늘에는 商業과 貿易에 依해서 얻을려고 期待하고 있다. 그러면 中国은 어떤가? 只今이야 歐羅巴人에 依한 中国港湾의 支配라는 懸案은 一掃되어 버렸기 때문에 "中華帝国"의 꿈이 아지랑이 희미한 未來속에 떠오르고 있다. 거기에는 日本·蘇聯 雙方 다같이 恒久的으로 抑圧되어 大陸部와 島嶼部를 包含한 全아시아가 北京의 支配下에 있는 그러한 꿈이다.

그러나 現在의 不等辺三角形에 있어서의 中国의 役割이 比較的 受動的이라 할 것 같으면 蘇聯과 日本의 그것은 充分히 能動的이다. 蘇聯이 새로이 開始한 5個年計劃은 東部시베리아(特히 沿海州)의 開發에 重点을 두고 있다. 그리고 実用主義的인 日本은 機会를 얻기 為해서 이를 援助하고 있다. 日本人 技師들은 벌써 "나호도카"와 "우라지오스톡크"의 精錬所와 造船所의 近代化·再建工業에 從事하고 있다. 그리고 現在의 計劃으로는 日本의 製造業者들에 対하여 石油採掘施設과 "오비"江油田에서의 新시베리아橫断 "파이프·라인"으로서의 全長 5,000마일 以上 두께 48인치의 "파이프·라인"의 建設寄与를 求하고 있다. 但 "파이프·라인"과 附属設備의 引渡는 正式의 日·蘇平和条約의 順調로운 締結

을 기달려야 할런지 모르겠다.

日·蘇間의 平和条約 交渉은 国後·択捉両島의 問題로 깨진것 같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1945年 10月 歯舞諸島와 같이 蘇聯軍이 占領한 이들 両島를 返還할 것을 蘇聯政府가 拒否하고 있기 때문에 이다. 그리고 最近의 政治的 経済的圧力의 結果 平和条約交渉은 가까운 将来에 再開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日本은 그 "파이프·라인"과 石油採掘施設提供에 対하여 日本이 몹시 不足을 느끼고 있는 石油 即 오비江油田産의 石油로 支払키로 되어 있다.

한편 蘇聯은 훨씬 비싼 価格이 아니고서는 外国에서 "파이프·라인"設備를 손에 넣을 수 없는 現況이다.

英国과 같이 日本은 食糧·燃料·原材料를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製造業者의 島嶼国이다. 그리고 英国과 같이 日本에서도 繁栄하는 工業의 基盤은 農業地域을 앞질러 왔다. 輸入은 適切한 商船隊와 充分한 海軍力 및 空軍力 그리고 必然的으로 市場을 必要로 한다.

이와같은 要素를 総合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日本이 国家로서 살아 남느냐 他国에 従属하느냐의 決定点이 되고 만다.

世界市場에 対한 西方側 諸国과의 競争者로서 日本의 自衛概念은 그 本国의 島嶼에서 燃料·食料·原資材의 供給源에 나아가서는 世界市場으로까지 拡大치 않을 수 없다. 要컨데 日本은 "워싱톤" "모스코바"北京등이 좋아하든 싫든 間에 世界列強으로서의 그의 地位를 再次 찾지 않으면 안된다. "달라"에 対해서는 아직도 過小評価되고 있다. "円"의 德沢으로 日本은 그 競争相対国의 어느 나라보다도 싸게 팔수 있는 立場에 있다. 事実 "円"이야 말로 日本이 商去来를 할 余地를 가지고 있는 唯一한 領域일 것이다.

7. 田中内閣의 防衛強化策

作年(72年) 7月 自由民主党의 忠実한 "베테란"党員 田中角栄가 佐藤作에 代身하여 首相에 選任되어 12月10日의 総選挙에서 그 地位의 確認을 받았다. 田中氏가 佐藤内閣의 防衛庁長官을 지냈으며 日本의 核武器所有에 関해서 가장 꺼리김없는 推進者인 中曽根康弘을 그의 内閣의 主要閣僚로 했다는 것은 重大한 意味가 있다. 防衛費補正予算案을 通過시킨 功績의 많은 部分은 그의 徳沢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同予算案의 国会提出에 앞서 田中氏의 承認이 必要하였다. 이 両人은 다같이 보다 強力한 日本의 軍事的 姿勢와 "워싱톤"으로 부터 独立한 世界에 있어서의 政治的立場을 頑強히 支持하고 있다 日本의 完全한 自主・自立을 推進하기 為해서 이 新防衛5個年計劃(1972~1977)은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1) 俸給引上에 依한 自衛隊員의 士気昂揚
(2) 新武器의 開発促進
(3) 最新式 武器生産의 奨励

그러나 事実에 있어서는 田中内閣과 佐藤内閣의 참된 差異点은 日本은 世界的으로 그에 相応한 地位를 発見해야 하겠다는 意思의 公公然한 主張을 했다는 点 뿐이다. 佐藤内閣도 조용하면서 "내쇼나리스트"的이었다. "마리아나"群島 其他 "미구로내샤"諸島에 対한 日本의 商業的 進出은 그 많은 部分이 非合法的인 것임을 充分히 알면서도 佐藤内閣의 保証에 依해서 行하여졌던 것이다.

똑같이 그것은 日本의 収益에 対한 直接의 脅威은 아니였음에도 不拘하고 佐藤은 1971年11月의 「"마라카-"海峡은 이미 国際水路는 아니다」라는 "인도네시아" "마레시아"両国의 共同声明에 対

한 蘇聯의 攻擊에 賛意를 表明하였다. 그리고 드디어는 美国으로부터 "오끼나와"를 返還케 했던 것은 勿論 佐藤이었다.

田中氏의 外交政策은 現在가지는 "닉슨"大統領에 依해서 만들어졌던 前例를 踏襲한 것이었다. 日本政府는 "닉슨"의 北京·모스코바 訪問政策 策定의 旅行을 憤慨하고 있었다. 그러나 田中氏는 그 自身 北京巡礼의 旅行을 하고 法律的으로는 約30年間이나 戰争状態에 있었던 国家와 正常的 外交関係를 回復하였다.

万一에 蘇聯과 正式의 平和条約締結의 交渉이 成功할 境遇 同条約의 条項(特히 宗谷海峡과 그안에 있는 諸섬들의 問題)은 確実히 興味로울 것이다. 그러나 시베리아 沿海州의 基地와 港湾의 復旧와 近代化에 関해서의 日·蘇協力의 範囲는 只今 곧은 明確하게는 되지 않을런지 모른다.

日章旗가 또다시 地平線上에 上昇하기 始作함에 따라 日本政府는 그 世界에의 影響力을 評価하면서 그 目標에 対한 誇大宣伝을 慎重히 避하고 있다. 日本航空 自衛隊 退役中将 奥宮正武가 美海軍研究所「会報」(1972年11月号)에 寄稿한 書簡은 実로 柔軟한 論調였으며 結論部分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陳述하고 있다. 「現在 및 가까운 将来에 있어서의 日本의 軍事力은 誇大評価한다는 것은 이미 死滅한 旧帝国軍隊의 印象을 바탕으로 하여 "종이 호랑이"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오늘에 있어서는 아마도 종이 호랑이일 것이다. 그러나 내일은 果然 어떻게 될 것인가?

다. 印　　度　　編

核「二無政策」을 取하는 印度
아시아의 新勢力센터의 追求

— Easwar Sagar —

몇年前의 일이지만 「딘·러스크」(当時의 国務長官)는 10億의 中国人이 核武器로 武装한다는 將來의 妖怪의 모습을 描寫해 보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中国을 "黃禍"로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적어도 美国人의 눈에서 보면) 이미 時代에 뒤진 思考方式이다. 中国은 蘇聯이나 美国과 같이 現在의 確立된 秩序를 変更시킬 것에는 그다지 興味를 갖지 않고 그秩序 속에서 中国의 地位를 維持하는 것에 関心을 갖는 "現狀維持勢力"이 되어 버렸다. "방그라뎃슈—" 事件에서 中国이 演出한 役割(거기서는 中国은 "解放"보다도 現在秩序를 支持하였다.)과 "베트남"平和協定을 実現하기 為해서 中国이 舞台 뒤에서 演出했던 役割과는 同国이 眞実로 現狀維持勢力이 되었다는 証據가 되었다.

第2次大戰 以來 行하여저 왔던 "勢力센타—"의 分裂增殖의 過程에 있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5個의 勢力이 定着하게 되었다. — 即 美国·蘇聯·欧羅巴共同体·中国·日本이 그것이다. 다음의 30年間에 있어서 더욱 勢力의 分散이 일어날 것인가 어떨것인가를 検討한 것도 興味있는 일일것이다.

1. 中勢力国 印度

現在의 人口 增加率이 根本的으로 変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世紀의 変換点(今世紀末)까지에 印度 人口는 10億이 되게 된다. 또 萬一에 現在의 国際関係(現存의 센터—에서 発散하는

軍事的・政治的・経済的 힘에 基盤을 둔 関係)가 基本的으로 変하지 않는다고 하면 印度가 할수 있는 唯一한 方法은 印度로서 반갑지 않은 方程式을 変更시킬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勢力센터ー의 地位를 求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充分히 생각될수 있는 것이다. 印度는 아마도 経済力에 있어서 他国보다 뒤떨어질 것이기에 印度가 大国의 地位에 이를 지름길은 核保有国이 된다는 態度를 決定한다는 것도 있을수 있는 일이다.

오늘날의 印度는 구지 定義를 내릴 것 같으면 単純한 中勢力国(Middle Power)이다. 勿論 그 中勢力国中에서는 極히 重要한 国家이지만 그 地位의 属性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即 印度는 直接의 隣接地域(例를 들면 방그라뎃슈)에 있어서의 事態의 発展에 対해서는 印度 自身의 "啓蒙的 利己主義"에 依해서 影響力을 갖일수 있지만은 印度에 조금 멀리 떠러져 있는 地域(例를 들면 東南아시아나 中東地域)의 事件의 推移에 対해서는 影響力은 갖일수 없거나 或은 같은 形態로서는)가질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能力은 오늘날에는 強大国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一層 깊이 印度의 가슴속에 사무쳐 있는 것은(따라서 印度를 国際的 地位 向上의 追求에 쫓아 넣고 있을것) 印度가 "中勢力国"으로 머물러 있음으로 因하여 当然히 印度自身의 地域에 있어서의 印度의 役割까지도 一定한 條件下에 못박아둘려는 強大国의 企図의 対象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一強大国의 立場에서는 印度는 그들 自身의 사이에서 간혹 衝突하는 世界政策의 実現에 있어서 「単純한 利用可能한 道具 또는 不必要한 障害物」에 不過하게 되어 있다. 그 어떠한 伝統的 敵意나 友好関係 보다도 더욱(現在까지는)이것이 印度의 対美・対中・対蘇 関係를 決定지어 왔던 것이다.

中国은 元来부터 "파기스탄"을 좋아 하였던 것도 아니고 印度人을 싫어 했던 것도 아니다. (1956年에는 人民日報는 中印関係를 「10億人民의 友好関係」라고 陳述하고 있다.) 中国은 最近에 와서야 美国의 認識가운데서 大端히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 있지만 美国의 政策立案者가 "民主主義의 印度야말로 全体主義의 中国에 対한 가장 좋은 回答이다." 저는 見解를 強力히 主張했던 적도 그다지 먼 옛날은 아니다. 蘇聯과 印度는 現在 密接한 同盟関係에 있지만 "모스코바"가 故 "네—루" 首相을 評하여 "帝国主義의 走狗"라고 評한 일도 있었다. 印度式 利他主義도 或은 類似한 "이데올로기"—的 哲学도 어느것도 自己편(我側)을 定하는 데 있어서 重大한 要素는 아니였다. 왜냐하면 現実主義者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超大国들은 그들의 政治様式을 他国에 移植하는데는 거의 興味가 없으며 国内에서 그것을 保持(維持)하는 것에만 関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独立后 25年을 経過한 印度도 아마 이것이야말로 大国게임의 이름으로서 行하여지고 있는 本質임을 理解할 수 있는 程度로는 世上物情을 알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印度가 憤慨하고 있는 것은 이 大国게임이 언제까지나 継続状態이며 印度亜大陸의 民族을 分割支配하기 為해서 제나름의 強大国들이 印度에 있어서의 英国의 政策의 踏襲인 "分割統治"策을 適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2. 経済自立을 指向한 印度

印度는 現実問題로서 "中勢力国"以上의 무엇인가 되고 싶은 希望을 가질수 있을 것인가? 印度의 国内的 諸條件과 対外関係를 簡潔하게 摘記한다는 것은 遠隔地의 観察者가 印度에 対한 将来의 可能性에 対한 合理的 評価를 하는데 어느 程度 도움이 될 것이다. 議会制民主主義의 25年을 経過하여 印度는 只今도 如前 死滅해 가고 있는 優良品種의 国家群(民主主義国家)中에서

選抜된 랭크(그後는 10餘国未満임)에 머물러 있으며 貧困이라는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民主主義라는 奢侈를 維持하고 있다. "간디" 夫人이 引率하는 党이 1971年의 総選挙에서 산사태처럼 휩쓴 大勝利를 얻은 以來 印度国家는 政治的 安定을 享受하여 왔다. 곧 짐작할 수 있는 將來에 있어서도 同国이 右翼 또는 左翼分子의 独裁下에 빠질 危險性은 于先은 없을 것 같이 보인다.

隣近의 他諸国의 狀況과는 달리 印度 陸軍은 그들이 継承한 英国의 伝統에 따라 언제나 完全히 政治와는 無関心을 持続하고 있다. 그것과는 対照的으로 国家는 自立 成長의 段階에 到達했는데 經濟的 安定은 如前히 將來에 期待하고 있다. 国民総生産(GNP)으로 보며는 世界第10位 530億달라이지만 5億6千萬이라는 膨大한 人口때문에 国民1人当 GNP 랭킹은 世界"리스트"中에서는 最低에 가깝다.

그러나 最近 若干 勇氣를 얻을만한 2個의 発展이 있었다. 하나는 農業分野에 있어서의 "緑化革命"(Green Revolution)이며 또하나는 自主 自足으로 向하는 印度政府의 決定이다. 이들 2個의 要因의 結果로서 印度는 1972年 初頭以來 美国으로 부터의 特別許可에 依한 (即 公法第480号에 依함.) 食糧援助 없이도 지탱해 나갈수 있게 되었다. 事実 印度의 食糧生産은 1951年 以來 倍増하여 1971年에는 1億800萬톤이라는 "피크"에 이르렀다. 그后 1972年에는 収穫不良때문에 印度는 200萬톤의 糧穀을 輸入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그 輸入量은 全部 現金支拂로 買入 했던 것이다. 더욱이 蘇聯도 中国도 훨씬 더 많은 食糧不足에 逢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는 事実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일 것이다.

過去 数年동안 印度의 開発을 支援하기 為한 重点도 外国援助에서 貿易으로 移行하였다. 第3次 5個年 計劃(1961年~1966年)의 期間中에 全印度의 投下資本의 20%는 援助에 依한 것이였으나 1974年에 終了할 第4次計劃에서는 그 数字는 8%로 低下되었다. 昨年 美国政府가 対印度援助를 一時 停止하였을 때는 印度와 美国(美国은 印度의 最大의 貿易相対国이다.)間의 輸出入貿易의 総額은 8億달라라는 "파ー크"에 達했다. 뿐만 아니라 史上最初로 少量이기는 하지만 印度側의 出超 現象이 나타났다.

한편 最近 4年間의 印度·蘇聯의 輸出入 貿易額은 年平均 4億8,000萬달라 였으며 印度로서는 커다란 貿易黒字를 記録하였다. 印度의 対蘇貿易의 大部分은 印度에게는 有利한 "루삐ー拂制"또는 "바ー타ー"制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現在 印度가 받고 있는 援助의 大部分은 美国을 除한 各国이 参加하고 있는 世界銀行콘소ー셤(国際借款団)과 国際開発協会 및 蘇聯으로 부터이다. 그中 蘇聯으로 부터의 "그레짓트"는 鉄鋼工場 및 重機械組立工場의 建設.火力発電所.石炭鉱業.石油 및 개소린精油所의 建設費에 使用되어 왔다. 印度国民의 大多数는 아직도 貧困의 水準以下의 狀態에 있지만 経済学者들의 말에 依하면 印度는 이미 工業의 下部構造를 建設하여 끝냈으며 그것은 10年 乃至 12年以内에 印度를 経済的으로 自給自立시킬 것이라고 한다.

3. 印度洋의 "王"

軍事力에 関해서 말할것 같으면 印度는 100萬人의 軍隊를 保有하고 (壮丁該当年令의 사람은 1億에 達한다.) 全世界의 軍事力가운데에서 兵力数에 있어서는 第4位이며 軍事費의 面에서는 第11位(国防費豫算은 17億달라)이다. 強大国의 洗練된 武器庫에 比하면 印度軍의 裝備는 이렇다할 問題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南아프리카로 부터 싱가포루까지 펼쳐 있는 印度洋周辺의 円弧中에서 印度가 가장 크고 가장 進歩된 陸軍·海軍·空軍을 保有하고 있다는 것은 明白한 事実이다.

1971年의 対"파기스탄"戦争에서 보인 그들의 実績은 印度는 "애굽"과는 달리 이들 近代武器를 駆使할 수 있다는 것을 誘示하였다.

過去 10年間 蘇聯은 印度의 主된 軍需品供給国으로서의 役割을 맡아 왔지만 (萬一에 1962年의 中国의 印度攻撃의 境遇 美国이 "파기스탄"과의 同盟에 依해서 沮害되지 않았드라면 이 役割은 美国이 맡게 되었을 런지도 모른다.) 印度自身도 近代的 防衛産業을 発展시켜 自動小銃으로 부터 戦車 "프리게―트"艦, "맛하 2"의 超音速軍用機에 이르기까지의 多種·多様의 武器·装備를 製造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라이센스 生産을 하고 있는 미그 21戦闘機나 SA·시리스의 헬콥타―는 包含되어 있지 않다.)

過去 10年間에 있어서의 印度防衛産業에 対한 投資総額은 25億 루삐―(1달라는 7.3루삐) 以上이 된다.

"파기스탄"은 印度의 安全保障上 이미 重大한 威脅을 줄만한 存在는 아니게끔 되었다. 印度国境에 対한 唯一한 敵大勢力은 中国뿐이다. 그러나 印度의 政策立案者들은 印度의 空軍力(戦闘機 650台)과 陸軍力(完全装備의 山兵師団 9個師団을 包含)을 가지고 対하며는 国境地帯의 通常(非核)戦争에 있어서는 充分히 中国軍에 対抗할 수 있다고 合理的으로 믿고 있다. 이 信念의 一部는 1971年8月의 印度·蘇聯條約이 中国에 対한 効果的인 阻止力이 되고 있다는 想定으로 부터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방그라뎃슈 戦争中 中国側은 同盟国 "파기스탄"을 支援하기 為하여 "라닥그"나 "네팔"의 国境을 넘어서는 한사람의 兵力도 움직이

지 않았다는 것으로 立証되었다.)印度는 또 美中関係의 改善에도 不拘하고 그 어떠한 나라이든 核의 恐喝로 呼訴하는 나라에 対해서는 断呼히 反対의 行動에 나온다는 존슨 및 닉슨 大統領의 幅넓은 公約은 現在도 継続 充分히 効力이 있는 것으로 想定하고 있는 것 같다.

4. 海軍建設에 最重点

이리하여 印度의 安全保障에 対한 陸上으로 부터의 威脅은 抑制될 目測이 섰기 때문에 印度의 思考方式은 3,000哩의 海岸線을 갖고 外部世界에 対한 印度의 生命線의 役割을 하고 있는 印度洋에 돌려지고 있는 것 같다. 現在까지로는 印度海軍은 그 陸軍이나 空軍과 同一한 程度의 注目을 끌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印度의 政策立案者들이 "아라비아"海와 뱅갈湾에 各各 独立해서 展開할만한 보다 바란스가 잡힌 海軍의 建設에 最重点을 두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理由는 있다.

同時에 印度의 政策은 印度洋이 相互 対抗하는 他国海軍의 衝突舞台가 되는 것을 防止할 것도 目標삼고 있다. 그러나 印度는 独自的으로 이 原則을 強行할 程度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外交的 手段에 依해서 이것을 할려고 努力하여 왔다. 印度가 蘇聯과 同盟関係로 들어간 結果 蘇聯에 基地를 貸与함으로서 蘇聯海軍이 印度洋에 恒久的으로 駐留할 길을 열었다는 説에 関해서는 美国의 統合参謀本部議長 "토마스 무라―" 海軍大将이 좀 前에 워싱톤에서 記者団에 対하여 "只今까지로 보아서는 그와 같은 것은 이러나고 있지 않다."고 말한 外에는 権威있을 만한 発言은 없다. 正式的 軍事協定은 파기스탄이나 濠州·뉴질란드와 같은 나라들에 対해서 까지도 不愉快한 것이 된다는

狀況이기 때문에 沿岸諸国이 이 印度洋海域의 中立化를 為해서 相互 協力하고 그에 따라서 印度洋이 大国競争의 戰乱의 場所가 될 것을 防止할 合理的인 決定(合議)도 머지않아 現實的인 것으로 될 것이다. 이들 諸国 自身만으로는 所謂 眞空地帯를 充満시킬수는 없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 諸国은 적어도 他의 누군가가 그것을 充滿시키는 것을 防止하는데 努力한다는 것은 可能하다.

印度의 防衛体制는 広範한 넓이를 갖는 輸送網에 依해서 維技되고 있다. 世界第4位의 走行키로数를 갖는 印度의 鉄道시스템은 트럭이나 貨車에서 디젤機関車에 이르기 까지 모두 国産品으로 調達되고 있다. 또 印度는 現在 300萬톤의 船舶을 所有하고 그 沿岸貿易의 모두를 自力으로 運営하고 그위에 外国貿易의 40%를 自国船으로 調達하고 있다. "비샤가빠도남" "봄베이" "가루캇타" 에 있는 3個의 造船所는 大洋航行用의 貨物船이나 中型海軍艦艇을 建造하고 있다. "코친"에 建設中인 第4의 造船所도 1976年에는 操業을 開始하고 8萬5,000톤級의 大型貨物船을 建造할 豫定이다. 基地의 工業発展의 指標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鉄 鋼; 6工場

年産; 600萬톤

나. 시멘트; 年産: 1,400萬톤

다. 原 油; 年産: 800萬톤

라. 精 油; 年産: 1,800萬톤

마. 化学肥料; 年産: 100萬톤以上

더욱 印度政府의 科学技術委員会의 発表에 依하면 西方側 諸国의 水準에서 比較하기는 無理이지만 印度런 GNP의 0.54%를 研究開発費에 投入하고 있다.

5. 核経済로 移行

総数 56萬을 넘는 印度村落의 많은 곳에서는 貧農들이 아직까지도 調理用의 燃料로서 乾燥한 쇠똥덩어리를 使用하고 있다는 理由로 西欧人들 中에는 印度経済를 評하여 "소똥経済"(카우·당·에코노미)라고 하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実은 印度人은 "소똥経済"時代와 核時代의 雙方에 걸쳐서 生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事実에 가까울 것이다. "본베이" 近郊의 "바-바-" 原子力 研究所의 巨大한 돔(Dome)을 背景으로 한 한台의 牛車의 寫眞만큼 이것을 生生하게 表示한 것은 없을 것이다.

事実 西方側 専門家의 大部分도 印度가 現在까지에 벌써 核技術에 있어서 相当한 進歩를 걷우고 있음을 認定하고 印度가 그렇게 하겠다는 政治的 決定만 내릴것 같으면 그后 6個月以内에 最初의 原子力装置를 爆発시킬수가 있다고 믿고 있다.

現在 印度는 実験用 原子炉 3基外에 2個의 重水生産施設과 1個의 化学的 分離施設을 가지고 있다. (이 施設은 核武器에 使用한 것과 同等의 "프라토늄"을 生産할 수가 있지만 実際로는 "프라토늄" "우라늄" "토리움"의 循環置換法=그것이 消費하는 것 보다 많은 核燃料를 生産한다.=에 基하는 発電所의 新規発電用에 使用되고 있다. 구자라-트州의 出力 380메가왔트의 "대라뽀-루"発電所는 이미 発電을 하고 있지만 라쟈스탄州의 "라나·뿌라닷푸·사가-루"에 印度人의 技師와 科学者의 손으로 建設된 出力 400메가왔트의 発電所도 昨年8月 臨界点에 達하여 操業을 開始하였다. 第3의 発電所는 마도라스州 "가라빡깡"에 세울 豫定이며 継続하여 第4, 第5, 第6의 発電所가 印度의 北部 및 西部地方에 建設될 豫定으로 되어 있다. 核에너-지 利用에 따른 発電目標는 1980年代까지는 2,700메가왔트로 되어 있다.

또 伝하는 바에 依하면 原子力의 平和利用의 目的을 為하여서이지만 原子装置를 地下爆発시키기 為한 準備도 進行中에 있다고 한다. 印度는 世界的으로 現在 알려져 있는 "도륨"埋蔵量의 切半을(게해라州와 비하루州에)가지고 있지만 "우라늄"에 対해서도 鉱山 하나와 1日 1,000톤의 鉱石을 処理할 수 있는 工場 하나를 가지고 있다.

6. 核에 있어서는 "二無政策"

敵対関係에 있는 中国이 核武器 所有国이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印度는 只今 状況에서는 核武器計劃에 着手할 것을 保留하고 있다 印度는 또 核拡散防止條約의 調印도 또한 拒否하여 왔다.(印度側의 拒否理由로서는 同條約은 非核所有国에 依한 水平的(地上의) 拡散을 禁止하고 있는 반면 核所有国의 垂直的(地下의)拡散을 認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二無"政策(即 核武器를 만들지 않는다. 核防條約에는 調印하지 않는다.)은 印度의 選択権을 自由로히 남겨 둘 機能을 하고 있다.

印度가 그 選択権을 "核武器保有"에 向하여 行使하게끔 誘発될 가장 避할 수 없는 事情을 말할것 같으면 印度에 対한 中国의 態度가 더 一層 攻撃的으로 되었을 境遇일 것이다. 1971年의 南아시아戦争(방그라뎃슈 紛争의 印파戦争)의 后 中印関係 美印関係가 다같이 最低로 까지 冷却하였을 때 印度政府의 首脳部는 "오리—부"의 가지를 내놓고 和解의 申請을 했든 것이다. 그리고 最近 行하여진 "닉슨"大統領과 "간디"首相의 友好的 交歓은 더 좋은 雰囲氣를 約束함에 이르렀다. 그러나 中国은 現在까지는 和解를 가져오기 為한 印度側의 招待를 継続 無視할 길을

選択하여 왔다.

蘇聯만이가 危機에 処하여 印度側에 加担하였기 때문에 当然 印度에 있어서는 蘇聯에 対해서 善意의 餘地가 있었다. 그러나 以前에 속아 본 経験이 있기 때문에 印度의 輿論은 現在의 鄭重한 友好関係를 過度의 依存関係에 까지 発展시킬 것을 許容하지 않을 만큼 慎重한 態度이다. 勿論 將來의 政策은 다른 強大国들이 印度에 対해서 어떠한 態度로 나오느냐에 걸려 있다.

"간디" "붓트" 両首相의 "시무라"에 있어서의 首脳会談도 "파키스탄"과의 関係를 이번만으로서 깨끗이 結末을 지어 볼려는 印度側의 努力이었다. 그러나 스타트는 前途有望한 것 같이 보였지만 아직까지 緊張緩和를 産出하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隣近의 小国群(스리랑카·부一탄·네파一루·버마·방그라뎃슈)에 対해서는 印度는 「兄任然한」態度의 "이미지"가 惹起할 自然発生的 敵意를 불러 이르키지 않도록 한결같이 低姿勢로 臨할 努力을 하여 왔다. 印度는 現下 非同盟主義이며 앞으로도 틀림없이 여기에(非同盟主義)머물을 길을 選択코저 한다. 強大国의 하나가 印度에 対해서 印度自身의 防衛를 為해서 "核구라부 参加"를 어쩌할 수 없이 強要하는 事態가 일어나지 않는 限 印度는 將來에도 非同盟에 머무루게 될 것이다.

2. 美國및日本의"에너지"危機實態

(限定된石油資源分析)

土　屋　清

1. 에너-지 危機에 関한 論議가 급작스럽게 世界的으로 높아가고 있다.

日本에 있어서도 重大한 関心을 불러 이르키고 있다. 불현듯이 筆者는 2年前에 "비엔나"의 OPEC (石油輸出国機構) 本部를 訪問하였던 것이 생각난다.

그 当時는 通商省派遣의 에너지 調査団의 一員이었었는데 世界의 에너지情勢가 一大転換을 示唆한 徵兆가 보여 그 調査次 나갔던 것이다.

OPEC 本部에 가보니까 參加한 10個国의 代表가 威勢도 당당하게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3.4時間에 걸친 熱熱한 討論이 展開되었는데 나는 그때 이前途는 容易한 일이 아님을 直感하였던 것이다.

가. OPEC가 積極攻勢.

OPEC側은 그때 우리들에 対하여 1960年代는 메이자(国際石油会社)의 攻勢에 눌렸었지만 70年代는 只今까지의 빼앗겼던 것을 回収할 뿐만 아니라 積極的인 攻勢에 나간다고 当当한 意気를 보였다. 그들의 말에 依할 것 같으면 石油의 資源은 앞으로 20年 乃至 30年이 지나면 아마 끝이 날 것이다. 따라서 "아라"의 神이 O.P.E.C 諸国에 주었던 이 燃焼하는 물을 最高度로 利用하여 最短時日内에 O.P.E.C 諸国을 後進国으로 부터 工業国으로 離陸시키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為하여서는

첫재 : 石油価格의 引上

둘재 : 事業参加 即 Participation이 不可欠이며 더욱 資源의

保存을 為해서는 生産制限을 実施한다는등등 極히 組識的으로 그들의 생각을 表示하였다. 사실 그後의 経過를 보면 1971年 봄에는 •데헤란• 協定이 締結되어 計劃的인 石油価格 引上이 決定되었고 72年 가을의 •리아도• 協定에서는 Participation의 基本方針이 確認되어서 73年부터는 事業参加가 25% 実現키로 되었다. 말하자면 그 当時의 言明에 따라서 •O.P.E.C•가 着着 計劃대로 推進하고 있다는 感을 준다.

이에 対하여 國際石油会社 即 메이쟈는 束手無策이며 그 背後에 있는 美·英 其他의 大消費国들도 一方的으로 当하고 있을 뿐이며 마침내 메이쟈와 O.P.E.C와의 力関係가 逆転된 것과 같은 印象을 준다. 그와 같은 것을 端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3月 22日부터 実施된 •이란•의 石油国有化問題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O.P.E.C의 動向을 展望하는데 있어서의 極히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란•은 O.P.E.C諸国中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이 穩健派로 알려져 있으며 •리비아• •이락• 等의 急進派와 対立하고 있는것 같이 보이는 立場에 있었다. 그런데 今年 1月23日 •빠-레비• 国王은 国際石油資本에 依하여 結成되어 있는 Consortiŭm (企業団)에 対하여 最後通牒을 急作스럽게 내밀었다 그 結果 메이쟈側은 79年까지의 Consortiŭm의 特権을 抛棄하고 그 代身 今後 20年間의 長期安定供給을 確保할 길을 選択하였다

따라서 •이란•의 新年度인 3月22日 以後 Consortiŭm(企業団)에서 石油의 利権은 回収되고 国有化가 一挙에 実現된 셈이다.

穩健派인 •이란•이 이와같이 强硬한 措置를 取했다는 것을 보드래도 今後 •딸라• 切下에 수반하는 原油価格의 引上뿐만 아니라 資源保護라는 口実로 生産制限이라든가 또는 所謂 Down stream이라고 称하여 精製.輸送.販売面에 O.P.E.C 側이 進出한다는等 온갖 手段으로 O.P.E.C의 權益을 拡大할 것을 企図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와 같은 攻勢앞에서 메이쟈는 그저 꼼짝못하고 O.P.E.C 側의 要求를 받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現情勢이며 이것이 美国과 日本에 주는 重大한 影響이 注目되는 바이다.

2. 以上과 같은 O.P.E.C 攻勢中에서 一層 더 危機感을 深化시켰든 것이 美国이다. 美国은 3年前까지만 해도 石油의 輸出国이었으며 또 메이쟈 数個社를 包擁하여 世界의 石油界를 支配하며 에너지의 確保에 何等의 不安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最近에 와서 国内의 原油와 天然개스의 供給에 意外의 差跌을 나타냈을뿐만 아니라 需要는 每年 激增하고 있기 때문에 原油의 輸入이 急角度로 上昇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即 72 年度의 原油輸入은 2億 2,500萬屯이며 石油 需要의 28%에 이르고 73年度에는 3億屯 即 35%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85 年度에는 이것이 6億 7,000萬屯 程度로 增大하여 50%를 上回할 것으로 보인다. 美国이 多年間에 걸쳐서 享有하여 왔던 에너지의 自給国이라는 地位는 完全히 崩壞된 態勢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 危機感을 強化하는 美国

美国이 海外에서 石油 天然개스의 輸入을 拡大한다고 하면 結局은 그 大部分을 中東地域의 O.P.E.C 諸国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만 그 供給確保에 関하여 美国의 危機意識이 增大한다는 것은 当然하다.

O.P.E.C 諸国은 価格의 引上을 企図할 뿐만 아니라 Participation (事業参加)의 実現에 依하여 生産量을 自由로 調節하고 境遇에 따라서는 生産制限, 輸出規制라는 手段에 呼訴할런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中東地域은 "아랍" 과 "이스라엘" 과의 紛争地域이며 언제 戦火가 O.P.E.C 国에 波及하여 石油의 供給이 阻害될런지도 모른다. 設或 O.P.E.C 諸国으로 부터 石油가 搬出된다 할지라도 美国에 到着하는 長大한 輸送路線이 언제. 그 安全性은 威脅 받을런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美国이 安全保障의 見地에서도 에너지에 危機意識을 높이 느낀다는 것은 当然한 일이지만 더욱이 이와같이 巨額의 輸入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現在 年 30億弗 程度의 輸入代金도 10年後에는 300億弗 程度에 이를 것이란 것도 그다지 예상착오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 딸라의 流出이 美国의 国際収支 또는 딸라의 価格維持에 重大한 問題가 될것이라는 것도 想像해 어려운것은 아니다.

以上과 같이 分析해 본즉 O.P.E.C 諸国에의 輸入依存度가 美国의 政治 外交 経済의 全分野에 影響을 준다는 것은 明白한 事実이며 그것 때문에 美国政府는 必死的으로 에너지政策의 確立을 서두루고 있다. "닉슨" 大統領은 머지않아 議会에 対한 에너지 教書를 보낼 準備를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教書가 発表되면 이

에 対備한 美国의 基本方針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니 그것을 기다려서 日本의 에너지政策을 再検討할 것이 要請되는 바이다.

3. 以上과 같은 美国의 《에너지危機》라는 表現속에는 日本立場으로 보아서는 相当한 誇張 또는 협박적인 要素가 包含되어 있음도 否定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日本에 比하여 美国은 훨씬 《에너지》資源이 潤沢하며 国内政策만 잘 한것 같으면 곧이나 그와 같은 危機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即 世界人口의 6%인 美国이 世界의 《에너지》의 35%를 消費하고 1人当 《에너지》의 消費量은 日本의 3倍에 이르고 있다 結局 《에너지》의 過剰消費라고도 말할 수 있는 傾向이 明白히 指摘된다. 뿐만 아니라 美国의 《에너지》資源의 保無状況을 보면 石油는 現在의 消費量에 対하여 80年 乃至 85年分의 埋蔵量이 있으며 天然개스는 90年乃至 95年分 石炭은 700年 乃至 800年分의 埋蔵量이 있다고 한다. 《에너지》問題로 苦戦하고 있는 日本의 立場에서 보면 想像키 조차 어려운 説話같은 巨大한 資源이다.

勿論 《Cost》의 面에서 或은 国防上의 理由로 나가서는 環境自然保全의 点에서 이들 資源의 開発이 簡単하지 않다는 것은 알겠으나 日本과 같이 資源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에너지》危機의 状況에 比較할 것 같으면 美国은 너무나도 호강된 나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点의 基本認識이 日本에는 欠如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美国은 1985年에는 石油의 輸入이 必要量의 5割을 넘는다고 해

서 只今부터 大騷乱을 피우고 있는데 日本은 現在에도 必要한 石油消費量의 99.6%는 輸入하고 있으며 그中 80%는 中東에서 輸入하고 있다. 全体의 "에너지" 構造에서 말할것 같으면 全 "에너지" 供給量의 70%는 石油이며 나머지가 水力과 石炭이라는 状況에 있다. 그 70%를 占하는 石油의 99.6%가 輸入이라는 것을 생각할때 美国의 "에너지" 危機에 比하여 얼마나 日本의 "에너지" 危機가 深刻하며 이리도 저리도 할 수 없는 段階에 일으려 있다는 것이 明白하여질 것이다.

筆者는 日本의 政治家가 "에너지" 問題에 無関心한 것이 정말로 理解할 수가 없다. 現在 "닉슨" 大統領은 "슐쓰" "키신자" 外에 "코나리" 前財務長官等 政界의 巨頭를 動員해서 "에너지" 対策의 確立에 精神없이 나대고 있는데 日本에서는 "에너지" 問題에 関心을 갖는 政治家는 거의 없으며 요지음에 와서 겨우 에너지資源庁의 設置로 面目을 세우고 있는 形便이다.

日本은 今年度 2億 8,000萬 키로리터의 石油를 輸入하고 있으나 이것이 10年後에는 6.7億 키로리터로 增加되어 또 그 殆半이 中東이라고 한것 같으면 그 곳에서 美国의 石油輸入과 크게 衝突하여 競合할 危險性이 多分히 있다. 限定된 中東의 石油資源을 日本과 美国이 必死的으로 争奪戦을 벌리게 되면 이것이 世界의 石油界에 주는 影響은 極히 基大하게 될 것이다.

가. 深刻한 日本의 에너지 危機

이 問題에 関해서 美国은 日本에 対하여 O.P.E.C에 共同으로 対処하기 為한 消費国 同盟의 提案을 내 놓았다. 지난번에

日本에 온 "베-타손" 前商務長官等의 意見과 같이 確実히 二大 消費国인 美国과 日本이 共同해서 O.P.E.C와 折衝한다는 것은 그 自体만 가지고는 바람직한 일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 問題에 対해서는 재빨리 O.P.E.C側의 反発이 있었고 그 有力者로 보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야마니" 石油相은 "萬若에 生産国에 対抗하기 為해서 消費国同盟을 建設한 것과 같은 일이 実現될 것 같으면 그것은 O.P.E.C에 対한 重大한 挑戦으로 認定하고 生産制限 輸出停止 其他의 措置를 取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日本의 "디렘마"가 있는 것이다.

日本으로서는 메이쟈로 부터 近 70%의 石油를 供給받고 있기 때문에 美国의 意向도 無条件 無視할 수는 없다. 그러나 今後 Participation에 依해서 O.P.E.C가 獲得할 原油가 増大하게 되면 "메이쟈"의 손을 거치지 않고 直接 O.P.E.C諸国으로 부터 原油를 獲得할 것에 期待를 걸 수가 있다. 従来와 같이 "메이쟈"에게만 依存하고 있으면 原油의 輸入이 100% 確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日本으로서는 直接 O.P.E.C 諸国으로 부터의 原油輸入의 길도 講究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軽率하게 美国과 消費国同盟을 締結하여 O.P.E.C側의 反発을 사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깨저버릴 念慮가 있다.

美国에 붙을 것인가 O.P.E.C側에 설 것인가 日本으로서는 困難한 両者択一의 갈림길에 서게 된 입장이 된다.

美国도 "에너지" 危機를 克服하기 為해서는 O.P.E.C諸国과 正面으로 問題를 이르켜서는 不利하단 것이 明白하기 때문에 一方的인 消費国 同盟의 結成에는 밀고 나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美国으로서는 従来의 •이스라엘• 一辺倒의 立場을 若干 修正하여 앞으로 •아랍•에 対해서 漸次的으로 接近하는 수를 쓴다는 것이 国際外交上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그와 같은 美国의 動向에 対応해서 活動할 것이 必要하며 基本的으로는 O.P.E.C 諸国과의 紐帯強化가 今後 日本의 石油政策으로서는 妥当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것이 되었든 石油의 運命이 앞으로 30年 前後라고 할것 같으면 여기 10年以内에 그에 代替할 •에너지• 資源確保의 方向을 세워 둘것이 바람직 하다.

原子力의 開発促進, 石炭개스化, 核融合,太陽에너지의 利用, 地熱発電 其他 各種의 有望한 •푸로젝트•가 있지만 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다음 時代의 •에너지•로서 育成해 나가야 할것을 서둘르지 않으면 안된다.

資源이 없는 日本으로서는 이 国際的인 研究開発의 促進에 全力을 다하여 協力할 것이 要緊하다. 그것이 成功할때 까지는 여기 暫時동안 石油供給의 不安定과 価格의 昂騰에 対해서는 우리나라로서도 漠然하게 楽観論을 가질것이 아니라 冷静히 •에너지• 危機의 到来를 認識하여 그 与件下에서 現実的 政策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아니된다.

美国의 •에너지• 危機보다도 日本의 •에너지• 危機는 훨씬 深刻하며 挙国的으로 이 問題 解決에 일어설 것이 現下 우리에게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土屋 清)